

광주일보·환경 단체 유어스텝 공동 '쓸모를 찾는 시간' 올해 마지막 행사

의류교환 파티·리페어 워크숍 등 일상 속 환경문제 고민 프로젝트

'새 옷을 사는 것보다 중고 옷 3벌을 다시 입으면 한 사람이 145일 동안 마시는 물의 양과 10년 생 신갈나무 9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절약하고 저감할 수 있다.'

광주일보와 환경 단체 유어스텝(대표 김지현)이 주최한 '쓸모를 찾는 시간-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자원 순환 실험실' 마지막 행사가 지난 23일 한결습가게(광주시 동구 충장로)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의류 교환 파티-바뀌 입장'과 '티셔츠 안 만들기-직조 체험', '뜨개 수선 워크숍' 등 쓸모 워크숍이 진행됐다. 오후 1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된 행사장은 100여 명이 찾아 북적거렸다.

의류 교환 파티에서는 입지 않은 옷들을 바꿔 입으며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다.

아름다운가게가 함께한 행사는 패션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의류 재사용의 가치를 알리는 다시입다연구소의 '21% 파티' 형식으로 진행됐다. '21%'는 자신의 의류 중 입지 않은 옷의 평균 비율을 나타내며 다시입다연구소의 설문 조사 결과에서 따온 이름이다.

가을-겨울 옷을 가져온 참가자들은 아이템 수만큼 교환권을 받아 행사장에 있는 마음에 드는 옷으로 교환했다. 가져온 옷에 담긴 사연 등을 '스토리 태그'에 적어 옷과 함께 직접 걸고 다른 옷들을 골라 교환권을 반납하는 과정으로 이뤄졌다.

'안녕, 바지야. 살이 찌서 못 입게 돼 미안해. 널 잘 입을 수 있을 새로운 주인을 만나렴.' '인터넷으로 구매했는데 사이즈가 작아서 청소년 친구들이 예쁘게 입어주면 좋겠어요.' '아빠가 선물해주었던 캐시미어 옷. 잘 입었으니 이제 보내줄게.'

옷을 떠나보내며 편지를 쓰고, 새로운 주인을 만나길 바라는 사연 등도 읽는 재미가 있었다.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결습가게에서 열린 '의류 교환 파티-바뀌 입장' 행사에서 참가자들이 옷을 고르고 있다.

다시 쓰고 고쳐 쓰는 자원순환 버려지지 않고 새롭게 재탄생

모자와 조끼를 가져온 김태율(12·광주 용주초)군은 "옷을 사러 시장에 나온 것처럼 재밌고, 새로운 옷을 고르는데 돈을 아낄 수 있어 신기하다"고 말했다.

두 딸과 함께 의류 교환 파티를 처음 방문한 신주란(서구 화정동)씨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자원 순환 교육을 할 수 있어 흐뭇해했다. 이들은 행사장 곳곳에 있는 제로웨이스트 물건들을 살피고, 직조 기법으로 쌓아올려 만드는 '릴레이 매트 직조 체험' 등을 즐겼다.

"집에 보관만 하던 옷들이 관심있는 다른 분들

에게 전달되니까 기분이 좋아요. 의류 수거함에 버렸다면 이런 기쁨을 몰랐겠죠. 의류 폐기물을 줄이고 환경 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더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티셔츠 안 만들기'와 '티셔츠 안 직조 체험' 워크숍에서는 참가자들이 한 땀 한 땀 작품을 만들며 버려질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윤연우 강사는 남겨나 더 이상 입지 않은 티셔츠로 티셔츠안(yarn-실)을 만들고, 직조 기법으로 티코스터를 짜 보는 수업을 진행했다. 여러 티셔츠 실로 만든 개성있는 티코스터가 완성됐다. 김

정규 씨는 "낡은 티셔츠로도 또 다른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유용하고, 앞으로 합부로 버리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한편, 광주일보는 지난 4월부터 한 번 만들어진 물건의 쓰임과 순환을 고민해 보는 '쓸모를 찾는 시간' 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3번의 의류 교환 파티와 우산 수리·자전거 기초 수리 등 리페어 워크숍, 자원 순환을 이야기하는 '한결습 집담회' 등 일상 속에서 환경 문제를 생각해보는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뜨개 수선 워크숍'에서 작품을 만드는 참가자들.

자투리 털실·폐기 털실 활용 한땀 한땀 '뜨개 수선 워크숍' 에코 디자이너 제타 안 진행

폐기 털실을 활용해 내 마음대로 수선하는 '뜨개 수선 워크숍'이 지난 23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한결습가게에서 열렸다.

에코 디자이너 제타 안(Zetta AHN) 강사가 진행하는 수업에는 오래된 소품을 더 오래 쓰고, 개성 있게 만들고 싶은 10명의 참가자들이 모였다.

안 강사는 "한 가지 기법으로도 멋스럽게 돌보일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며 "틀에 정해진 방법을 탈피해 손이 가는 대로 만들어보며 영성하지만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기본 뜨개 기법인 '겉뜨기'를 배운 참가자들은 알록달록한 자투리 털실과 폐기 털실 등을 활용해 소품을 만들거나 부족한 부분을 덧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아내와 함께 온 김영록씨는 에코 파우치 모고리를 가릴 파우치 주머니 덮개를 만들었고, 허은진씨는 아버지가 쓰신 오래된 카메라 가방에 뜨개로 끈을 달아 재탄생 시켰다. 독립 작가 리나씨는 가방의 뜯어진 부분을 화려한 실로 꿰맸고, 정지민씨는 딸의 가방에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어 달았다.

참가자들은 쉽게 구할 수 있는 털실로 새롭게 만들어보는 재미가 있고, 자원 낭비와 의류 폐기물도 줄일 수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한국-필리핀 직물로 하나된 작품 만들었어요"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 필리핀 작가들, 의류교환·직조체험 흥미

지난 23일 '한결습가게'에서 열린 '의류 교환 파티-바뀌 입장' 행사는 입지 않은 가을-겨울 옷을 바꿔입어 환경 보호를 실천하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이날 참가자들 중 의류를 교환하고, 릴레이 매트 직조 체험을 하는 등 행사를 즐기는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직조 워크숍에 흥미를 느껴 방문한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의 필리핀 작가들이었다.

행사장 벽면에는 마고 블라스·모린 오스트리아 작가가 제작한 커다란 직조 작품이 걸려있어 눈길을 끌었다. 한국과 필리핀 도시의 섬유·방직 산업 역사에 주목해 만든 작품으로 왼쪽은 한국 직물,

나머지 절반은 필리핀 직물을 엮었다. 특히 낡은 우리나라 관광지도 손수건도 있었다.

"필리핀이 방직 산업에서 신탕수수 생산으로 넘어가는 기점이 한국의 방직산업이 시작되는 시점과 맞닿아 있어요. 필리핀 전통 직물과 수집한 한국 직물들을 엮었는데, 신기하게도 필리핀 중고 가게에서 찾은 한국의 옛날 관광지도 손수건이에요. 패스트패션 산업이 성장하고 수출이 늘어나면서 생긴 사회, 환경적인 문제들도 함께 담았습니다."

마고 블라스 씨는 옷에 담긴 사연도 함께 적어 교환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고를 수 있어 재밌다고 했다.



'쓸모를 찾는 시간' 행사에 참여한 독립큐레이터 그룹 '오버랩' 필리핀 작가들과 김선영(오른쪽 세번째) 대표.

모린 오스트리아 씨는 "필리핀에서는 비싸서 사기 어려운 겨울 외투로 교환했다. 지속가능한 환경을 꿈꾸는 의류 교환 파티가 의미있고 즐거웠

다.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살고 있는 도시에서 진행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크** 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크!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크! 바로 바로 확인까지 크!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무)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 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미출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치 평 지 점 062)381-8212~3
 상 촌 지 점 062)381-6551~2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유 등 지 점 062)512-1984~5
 동 립 지 점 062)513-8521~3
 운 암 지 점 062)527-3295~6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유 덕 지 점 062)373-3235~6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상 무 등 지 점 062)372-3741~2

운암혁신지점 062)529-5335~6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기아지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